

노인 일자리 소득 이웃돕기 '쾌척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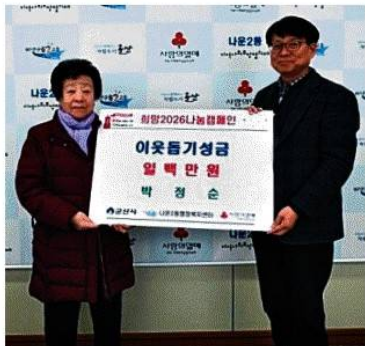
박정순 어르신, 군산시 나운2동에 100만원 전달

새해를 맞은 군산의 한 지역에서 따뜻한 울림을 주는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.

80대 어르신이 한 해 동안 차곡 차곡 모은 성금을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.

군산시 나운2동은 지난 5일 박정순(88) 어르신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. 이 성금은 박 어르신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소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것이다.

박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 주는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며,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왔다. 그렇게 모은 성금이 연초, 조용한 손길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됐다.



박정순(88) 어르신이 군산시 나운2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.

박 어르신은 “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수입으로 기부까지 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”며 “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나운2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 군산=이재봉기자